

發 刊 辭

心堂 宋相現 教授께서 지난 2월말로 35년에 가까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생활을 마치는 정년을 맞이 하셨습니다. 늘 청년같이 활기찬 모습으로 후학을 맞아 주시던 心堂 先生께서 벌써 정년에 달하였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心堂 先生은 일제 말기인 1941년 태어나 광복 직후의 혼란과 6.25의 신고를 어린 몸으로 겪으셨다. 아직 우리 사회가 여러 모로 자리가 잡히지 못하였던 50년대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평생 학문의 길에 매진하셨다. 선생께서는 대학 재학 시절 이미 고시 사법, 행정 양과에 합격하여 남들과 같이 법조나 정부 실무의 길을 갈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 길이 더 안정된 장래를 보장하였을지도 모르나 선생께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여 오늘에 이르셨다.

국의 유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신 이후 心堂 先生이 걸어 오신 길을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학자들이 취하여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선생께서는 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학문적 조류를 탐구하셨고, 장래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셨다. 그러다 보니 선생께서 새로운 학문분야의 학회 창설을 주도하신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한 선생의 노고가 오늘 한국 법학계 여러 분야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心堂 先生께서 일찍부터 해외 유수의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며 한국법의 세계화에 기여하신 업적은 아직 그 누구도 필적하기 어렵다.

心堂 先生은 평생 학자의 길을 걸어 오셨으며 세상 일에 담을 쌓고 사는 백면 서생은 아니셨다. 서울 법대 학장 등 여러 학술적 직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학문적 기반 육성에 기여하신 바 적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사회봉사 단체의 책임을 맡으시며 대학교수들이 게을리 하기 쉬운 사회봉사에도 진력하신

바 있다. 2003년부터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선임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정의 구현에 앞장 서고 계신다. 후학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가 경탄스럽기만 하다.

65세 정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청년 같은 풍모의 心堂 先生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떠나시게 되어 이제 남은 후학들의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心堂 先生의 정년은 서울 법대에서 동승동 발령세대의 마지막 분이 떠나시는 구나 하는 허전함을 남겨 준다. 비록 정년이란 제도로 인하여 교수생활을 마치시게 되었지만 心堂 先生께서 앞으로 후학들에 대한 指導鞭撻을 계속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07년 3월 15일

法學研究所 所長 鄭印燮 謹書